

비만 치료제 시장, 주사제에서 ‘먹는 약’으로

국내 제약사, 韓 맞춤형 치료제 속도

위고비 알약, 먹는 비만치료제 승인
1일 1회 복용으로 16.6% 감소율

한미약품, 첫 국산 상용화 앞뒤
일동제약, 비만약 임상 1상 진입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먹는 비만약 등장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으면서 국내 제약사들도 비만 치료제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23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글로벌 빅파마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알약’이 세계 첫 번째 ‘먹는 비만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이 알약은 세마글루티드 25mg을 1일 1회 경구 처방한 것으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기전을 갖췄다. 이번 승인은 OASIS 임상시험 프로그램과 SELECT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OASIS 4 시험은 비만 또는 과체중과 하나 이상의 동반질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마글루티드 25mg을 1일 1회 경구 복용한 경우 참가자들의 체중 감소율은 평균 16.6%로 확인됐다. 체중 감소 효과는 위고비 주사 2.4mg과 유사했으며 참가자 3명 중 1명은 20% 이상의 체중 감소를 경험했다.

이와 관련 마이크 두스트다르 노보노디스크 최고경영책임자(CEO)는 “현재 다른 어떤 경구 제형 GLP-1 치료제도 위고비 알약이 제공하는 체중 감소 효과와 경쟁할 수 없다”며 “환자들은 편리하게 1일 1회 복용하는 알약으로 기존 위고비 주사만큼의 체중 감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노보 노디스크는 오는 2026년 1월 초 미국에서 위고비 알약을 발매할 예정이다. 가격은 초기 용량 기준 월 149달러(약 22만원)로 책정됐고 이는 기존 비만



비만 환자는 이제 알약으로 체중 관리가 가능하다.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

치료제 대비 낮은 수준이다.

현재 노보 노디스크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후발 주자는 일라이 릴리의 ‘오르포글리프론’이다. 일라이 릴리는 지난 18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오르포글리프론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오르포글리프론 역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를 경구 제형으로 설계한 약물이다. 비만 또는 과체중 및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성인에서 체중, 혈당 등을 낮추는 효능을 입증했다.

일라이 릴리는 오르포글리프론을 6mg, 12mg, 36mg 등 세가지 용량으로 개발하고 있고 지난 8월 임상 3상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용량 모두 1차 및 모든 주요 2차 평가변수를 충족했다. 특히 음식과 물 제한 없이 하루에 한 번 복용한 오르포글리프론 36mg은 체중을 평균 10.5% 감소시켰다.

이후 최근에는 기존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주사제 또는 켈바운드 주사제를 72주 동안 투여한 환자에서 오르포글리프론으로 전환했을 때 최대 1년 시점에서 체중 감량 효과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제형 변경에서 장기 효과 등으로 연구개발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비만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미약품이 가장 선두에서 속도를 낸다. 한미약품은 지난 17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독자 개발한 ‘에페글레나타이드’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첫 번째 국산 비만 치료제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체질량지수 30kg/m² 미만 여성에서 12.20%의 체중 감소율을 보여 주목받고 있다. 초고도비만이 아닌 한국인 맞춤형 치료제로 기대된다.

일동제약은 국산 먹는 비만약을 개발하며 잔걸음을 내딛는다. 일동제약은 먹는 비만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ID110521156’을 확보했고 현재 임상 1상에 진입해 있다. 오는 2026년 글로벌 임상 2상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동제약의 ‘ID110521156’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작용제 계열 약물이면서, 비(非)펩타이드 기반의 저분자 화합물인 것이 특징이다. 기존 펩타이드 소재의 주사제에 비해 우수한 생산성과 사용 편의성을 갖췄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연구개발 속도는 이미 매우 빠르지만, 비만 치료제는 비만뿐 아니라 당뇨, 대사질환, 심혈관 등 만성질환 분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도 속도전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롯데시네마, ‘파리 오페라&발레’ 공연 선택

호두까기인형, 지젤, 르 팍 구성

다양한 콘텐츠 경험의 무한 확장을 추구하는 롯데시네마가 ‘파리 오페라&발레(Paris Opera & Ballet)’ 공연 시리즈를 극장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발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롯데시네마는 연말부터 새해, 봄까지 이어지는 시즌에 맞춰 클래식 발레를 차례로 감상할 수 있는 시리즈를 기획했다. 시즌별로 작품의 매력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클래식·낭만·컨템퍼러리 대표작으로 구성했으며, 공연의 감동을 스크린으로 확장해 관객들이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게 준비했다.

롯데시네마는 공연 콘텐츠 전문 배급사 ‘위즈온센’과 함께 세계 최정상 발레단으로 꼽히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를 상영한다. 이번 시리즈는 연말·연초를 대표하는 클래식 발레의 상징 ▲‘호두까기인형’(12/31 개봉)을 시작으로 사랑과 배신, 용서의 감정을 초현실적 판타지로 풀어낸 낭만 발레의 정수 ▲‘지젤’(2/5 개봉), 현대적 안무가 빚어내는 사랑과 욕망의 긴장을 담은 컨템퍼러리 발레 ▲‘르 팍’(4/9 개봉)까지 총 3편으로 구성됐다.

극장에서의 상영은 공연장에서는 놓치기 쉬운 군무의 동선과 구조, 호흡을 스크린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전달한다. 여기에 무대 미술, 의상, 조명 등 ‘파리 오페라 발레단’ 특유의 완성도 높은 연출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

‘파리 오페라&발레’ 시리즈는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건대입구를 비롯한 전국 10곳에서 만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롯데시네마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일동후디스, 유소년 축구선수 영양교육 확대

두번째 ‘아미노산 세미나’ 운영
성장기 선수들의 영양관리 초점

일동후디스가 유소년 축구선수의 건강한 성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아미노산 세미나’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일동후디스는 지난달 FC서울 유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첫 세미나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8일 성남FC 유소년 축구선수를 대상으로 두 번째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에서 열렸으며, 초·중·고 유소년 선수와 학부모, 코치진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일동후디스 식품연구소 관계자가 강연자로 나서 성장기 선수들의

영양 관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단백질 섭취 상태를 점검하는 자가 진단을 비롯해 성장 단계별 아미노산 섭취 전략,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섭취 방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선수 개인의 식량과 컨디션에 따라 적합한 영양 섭취 방법을 안내하는 설명도 이어졌다.

일동후디스는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단백질 및 아미노산 제품을 제공하며 일상적인 영양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유소년 선수들이 올바른 영양 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유소년 스포츠 현장을 중심으로 관련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동아에스티, ‘하이카디’ EX871 급여 인정

(원격 심박기술에 의한 감시)

실제임상근거로 안전성·활용성 입증

동아쏘시오그룹 계열사 동아에스티가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원격 환자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에 대해 ‘원격 심박기술에 의한 감시(EX871)’ 요양급여를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하이카디는 국내 최초 웨어러블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매주에서 개발했고 동아에스티가 판매한다. 생체 신호를 감속하는 심전도 패치를 부착하고 스마트폰과 연동해 언제 어디서나 환자 심전도, 심박수, 체표면 온도, 호흡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원격 심박기술에 의한 감시(EX871)’는 부정맥 발생 위험이 높아 실시간 감시 또는 치료 효과에 대한 연속적 감시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심전도 침상감시(E6544)’는 침상에 누워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EX871은 외래 또는 입원 중 환자가 이동하는 상황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한다.

하이카디는 병상이나 병동에 국한되



‘하이카디’를 통해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화면에서 생체 신호 데이터를 확인한다. /동아에스티

지 않은 병원 전반의 연속적 모니터링 환경과 다수 의료기관에서 실제임상근거(RWE)를 축적해 안전성과 활용성을 입증했다. 특히 원내 이동이 잦은 환자에서 생체신호의 측정 및 분석 성능뿐 아니라, 환자 위치나 이동과 무관한 끊임 없는 지속가능성을 갖췄다.

하이카디는 앞서 ‘심전도 침상감시(E6544)’ 요양급여대상으로는 지난 2020년 국내 웨어러블 기기 최초로 등록됐다.

박정환 매주 대표는 “수년간 실제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며 축적된 데이터와 운영 경험이 이번 EX871 수가 추가 인정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의료 환경 변화와 실제 운영을 종합 반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도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생명연장·삶의 질 개선’ 경영철학 실현 박차

HLB그룹, ‘HLB 학동 사옥’ 개소식
HLB생명과학 등 주요 계열사 집결
오는 31일 ‘통합 HLB’ 출범 예정도

HLB그룹이 ‘HumanLifeBetter(인류의 생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라는 경영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학동 시대’를 열었다.

HLB그룹은 2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HLB 학동 사옥’을 정식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은 지난 2024년 2월 해당 건물을 매입 후 약 2년 만이다.

학동 사옥은 연면적 9610.13㎡ 규모에 지하 4층과 지상 7층을 조성했다. 학동 사옥은 HLB그룹 내 계열사 간 협업과 시너지 창출을 주도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해 HLB를 비롯해 HLB생명과학, HLB제약, HLB테라퓨틱스, HLB글로벌 등 서울 소재 주요 계열사가 한 공간에 집결한다.

HLB그룹은 ▲창의(Create) ▲도전(Challenge) ▲협업(Collaborate) ▲



23일 서울 강남 소재 ‘HLB 학동 사옥’ 개소식에서 진양곤 HLB그룹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그룹 임원진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LB그룹

몰입(Concentrate) ▲변화(Change) ▲소통(Communicate) 등 6대 그룹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각 층에 유기적으로 반영했다.

계열사 간 물리적, 심리적 경계를 허물고 영감, 창의, 협업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새로운 업무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실질적으로 HLB그룹은 지난 2일 발표한 ‘2026년 정기 임원인사’ 계획에서도 각 계열사의 단독 대표 체제를 강화

함과 동시에 계열사 간 기술 협업 등을 본격화하는 구도를 확립했다.

특히 오는 31일에는 ‘통합 HLB’가 출범한다. HLB와 HLB사이언스가 합병해 존속법인인 HLB가 되며 HLB사이언스는 해산한다. 양사의 신약개발 역량과 연구 인프라가 연결되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 항암제 중심의 기존 파이프라인을 패혈증, 대사질환, 면역질환 분야로 다각화해 성장동력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